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5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5. (수)	담당부서	중동아프리카통상과
담당과장	최진혁 과장(044-203-5720)	담 당 자	박신렬 사무관(044-203-5724)

『한 · 사우디 VISION 2030 파트너십』 구축으로 우리기업의 중동진출 기반 조성

❶ 양국간 7대 비즈니스 분야(B2B) + 6대 정책 분야(G2G) 협력 중점 추진

❷ 장관급 『한·사우디 VISION 2030 Joint Group(가칭)』 설치 등 체계적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 추진방안 논의

❸ 한-GCC FTA 협상 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협의 제안 및 대규모 플랜트 건설사업(50억 달러 규모) 수주 지원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현지시각 4. 3.(월)~4.(화) 사우디(리야드)를 방문, **알 팔리 에너지산업부 장관, 파키흐 경제기획부 장관, 알 카사비 상무투자부 장관, 알 나세르 아람코 사장**과 연쇄 회담을 갖고

○ 사우디의 산업다각화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기 위해, **❶ 7대 비즈니스 분야(B2B) + 6대 정책 분야(G2G)** 협력 중점 추진, **❷ 장관급 『한·사우디 VISION 2030 Joint Group』 설치**를 통한 체계적 **이행점검 및 애로해소**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,

* **7대 비즈니스 분야(B2B)**: 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, 신재생에너지, 방산, 노후발전소 성능개선, 담수화 플랜트

** **6대 정책분야(G2G)**: 보건·의료, 중소기업, 경제특구, 인력양성, 정책연구소, 전자정부

○ **❸한-걸프협력회의(GCC) 자유무역협정(FTA)** 협상 기반조성을 위한 **예비협의 개시와 5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** 관련 사우디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.

사우디 방문 주요성과 및 면담결과

1. 양국간 7대 비즈니스분야(B2B) + 6대 정책분야(G2G) 협력 중점 추진

□ 주형환 장관은 '사우디 비전(VISION) 2030' 실행 총괄부처인 파키흐 경제기획부 장관, 산업·에너지분야를 관장하는 알팔리 에너지산업부 장관,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알 카사비 상무투자부 장관과 비전(VISION) 2030 **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**했다.

○ 사우디 장관들은 사우디가 최근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5대 **전략적 협력국가*의 하나로 한국을 선정**했음을 밝히고,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**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**했다.

*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, 인도

사우디 VISION 2030 개요

- 사우디는 유가 하락을 계기로 탈석유.산업다각화를 위한 『VISION 2030』을 발표(16.4월)하고, **막대한 국부펀드를 활용, 국내외 집중 투자**를 통해 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, 신재생, 방산 등 **신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**을 도모
  *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 기업공개(5%, '18년중)를 통해 1,000억불(110조원)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
-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제발전계획 실행경험이 부족한 사우디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단기간내 산업다각화를 이룬 **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**을 통해 정책경험, 기술 및 노하우 등의 공유를 희망
- 사우디와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시, 동 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**사우디시장 진출**과 사우디를 거점으로 **인근 중동·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공동진출 기대**

□ 양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이 발표한지 1년이 다 된 만큼,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**민간협력(B2B)과 정책협력(G2G)**으로 나누어 **우선 추진분야를 선정**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(**비즈니스 협력**) ❶사우디의 산업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의 기여도, ❷타국 대비 한국의 비교우위, ❸한국기업의 협력 의사 등을 토대로 **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, 신재생에너지, 방산, 노후발전소 성능개선, 담수화 플랜트** 등 7대 산업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우선 추진한다.

분 야	주요 내용
조 선	▸현대중과 아람코간 합작투자를 통해 조선소, 선박엔진 공장 설립
자동차	▸쌍용차의 사우디기업에 대한 현지 반조립제품(CKD) 자동차 생산 지원, 국내 쌍용차 협력업체 현지 진출
석유화학	▸SK종합화학과 사우디베이식인더스트리(SABIC)간 사우디 내 고부가 폴리에틸렌(넥슬렌) 생산 합작공장 설립
신재생 에너지	▸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해 태양광 발전 및 제조 합작법인 설립
방 산	▸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해 탄약, 장갑차 등 생산 합작법인 설립
노후발전소 성능개선	▸사우디내 증가하고 있는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에 참여
담수화 플랜트	▸양국기업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개발, 건설 및 운영 합작법인 설립

○ (**정책 협력**) 사우디의 산업다각화 실현을 위해 정책수요가 큰 **보건·의료, 중소기업, 경제특구, 인력양성, 정책연구소, 전자정부 등** 6대 정책분야에서 한국의 정책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.

2. 장관급 『한·사우디 VISION 2030 Joint Group』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이행 점검 및 애로해소 방안 논의

□ 주 장관은 7 + 6 중점 협력사업에 대해 양국의 체계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애로해소 등을 위해 ❶장관급 「VISION 2030 Joint Group」(가칭)을 신설하고 ❷실무적 업무를 담당할 **'민간협력(B2B) 그룹 + 정책협력(G2G) 그룹 + 애로해소 지원팀 등 3개 워킹그룹'**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.

○ (**협력 채널**) 장관급 「VISION 2030 Joint Group」(가칭)를 신설해, (i) 협력 추진상황을 점검(monitoring)하고, (ii)이행 촉진방안을 논의(facilitating)하는 한편, (iii)양국기업의 협력 애로사항을 해소(trouble-shooting)하는 역할을 수행

○ (**실무 그룹**) 또한, 「VISION 2030 Joint Group」 산하에 **민간협력(B2B)** 실무그룹(상의 주도), **정책협력(G2G)** 실무그룹(차관보급), 애로해소 지원팀(Trouble Shooting Unit, 차관보급)을 설치하여 실무업무 수행

□ 사우디측은 협력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주 장관이 제안한 체계적인 **협력채널 구축이 필수적임에 공감**하고, 사우디도 유사한 협력채널을 구상중에 있다며, 동 제안을 토대로 양국간 협의를 통해 **빠른 시일내에 세부방안을 확정**하기로 합의했다.

□ 한편, 주 장관은 한국기업의 사우디 내 합작투자의 가장 큰 애로인 **사우디의 자국민 고용제도*의 완화, 방산분야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****를 요청했으며,

* 사우디내 모든 기업에 대해 산업분야 및 고용규모에 따라 총 고용인력의 7~75%(예: 제조·건설 31%)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

** 사우디는 합작투자 등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나, 현재 방산분야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

○ 사우디측은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,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3. 한-걸프협력회의(GCC)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기반 조성 및 플랜트 건설사업(50억 달러 규모) 수주 지원

□ (**한-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(GCC FTA)**) 주 장관은 한국과 **걸프협력회의** 간의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은 한·사우디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교역·투자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국면(모멘텀)이 될 것이라며, 빠른 시일 내에 **한-걸프협력회의(GCC)간에 '예비협의'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.**

○ 이에, 알 카사비 상무투자부 장관은 사우디는 **한국과 걸프협력회의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지지**하는 입장이며, **예비협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과 협의**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□ (**플랜트 수주**) 주 장관은 프로젝트 주요 발주처인 세계최대 석유·가스 회사인 아람코 알 나세르 사장과의 회담을 통해, 우리기업이 가진 **우수한 기술력과 납기 준수 등 성실성** 등을 적극 설명하며, 우리 기업이 **하라드/하위야 가스플랜트(40억 달러), 쥬베일 열병합 플랜트(10억 달러) 등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**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.

○ 알 나세르 사장은 '70년대 현대건설의 쥬베일 산업도시 항만건설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불모지에 불과했던 지역이 사우디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변모할 수 있었다며, 한국기업의 입찰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박신렬 사무관(☎ 044-203-57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